



친애하는 회원사 및 환경가족여러분!

2007년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많은 국제회의와 시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우선 정부의 주최로 진행된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은 아·태지역 개도국가들의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 동북아 황사 대응을 위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참가는 지구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밖에 국내적으로는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관리체계 마련』, 『수도권 등 전국 대기환경개선 대책 수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정착 등 유역관리 강화』, 『국민건강중심의 환경보건정책 수립』, 『새집증후군 예방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등 다양한 정책 등이 수립·추진되었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질적인 풍요의 뒷그늘에서 있던 ‘환경’이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의 요체이며,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맑은 물, 더 푸른 하늘, 더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07년도 우리협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과 관의 교량적 역할을 더욱 두텁게 하여 기업과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친환경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시켜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하며,

둘째, 환경교육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초롱이의 환경세상』,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운영, 『한강생태학습장』, 『양수리환경생

태공원, 운영·관리 등 자라나는 어린이와 일반시민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더욱 심어주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우리협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제29회 국제환경기술전시회(ENVEX2007)”의 내실있는 운영과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를 통한 해외 마케팅 강화로 국내·외 환경산업의 발전은 물론 해외시장의 판로개척에도 가일층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정부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관리인 법정교육은 보다 나은 질적 향상과 교육대상자들의 편리성 제공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며, 또한 정부로부터 3대강 및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수질분석 기관으로 지정되어 각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업무 영역 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기업환경업무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환경법 해설 세미나 및 환경정책간담회 개최, 인터넷을 통한 각종 환경정보의 제공, 환경업무 애로사항 수렴 및 대정부 건의, 현장방문을 통한 환경 기술지도, 회원사 산업시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원사 지원사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환경가족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침체된 경제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 모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협회를 사랑해 주시는 회원사 및 환경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 2

환경보전협회 회장 손 경 식